

승보공양은
가장 법다운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려복지 후원 안내

승보공양 후원은 스님들이 노후나 병고의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 요양비, 수행비 등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불자님들의 승보공양은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현재 35분의 교구스님께 신도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전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보공양을 모든 공양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승보공양은 스님을 가장 스님답게 모시는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스러운 승보공양 동참은 불교의 수호와 홍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CMS 1인 1구좌 후원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후원이 아닌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승보공양 후원 동참자

진천스님 최성락 서은영 김명숙 김태홍 박근식 신미자 이은자 서현숙 이영숙 연용덕 안미영 김길환

승보공양 동참 안내 계좌이체 농협 351-1323-1288-03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6 | 9



계빈국 사자존자



제24조 사자존자가 25조 바사사다존자에게 법을 전하고 남천축의 골짜기에 숨어서 살기를 부촉하였다.
"불법이 위태롭기가 현사와 같으니 법을 잘 호지하고 유통하라. 나는 늙어서 세상의 인연이 다 하였으니 내 목숨으로 불법을 지키리라."
그리고 홀로 계빈국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의 외도가 있었는데, 온갖 요술을 배워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들은 스님으로 변장하고 몰래 왕궁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두 사람은 왕에게 거짓으로 아뢰었다.
"이 나라 승려들이 왕을 해치고 반역을 획책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즉시 나라 안의 절을 파괴하고 모든 승려를 죽이라고 명했다. 그런 다음 왕은 손수 칼을 들고 승려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사자존자를 찾아갔다. 계빈국 왕이 칼을 뽑아 들고 물었다.
"내 일찍이 부처님을 모시며 스님들을 공양하였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는구나. 그대는 과연 깨달았소?"
사자존자가 대답했다.
"예,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을 모두 여의었소?" "예, 이미 여의었습니다."
"이미 생사를 여의였다면 내게 머리를 줄 수 있겠소?"
그 말을 들은 사자존자는 빙긋이 미소를 머금으며 왕에게 대답했다.
"몸도 내 것이 아니거늘 어찌 머리가 내 것이겠소?"
왕은 이내 칼을 휘둘러 사자존자의 머리를 잘랐다.
목이 베이는 순간 흰 젖이 한 길 높이로 솟구쳤다. 그리고 왕의 팔이 저절로 땅에 떨어졌다.
그때 남천축의 바사사다존자는 홀연히 북쪽을 향하여 합장하고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나의 스승이신 사자존자께서 불법을 위하여 오늘 불행한 일을 당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하도다.
사자존자가 세상을 떠난 후 계빈국 왕은 시름시름 앓다가 7일 만에 죽었다.
이에 태자는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으로 알고 사자존자의 시체를 거두어 탑을 세우게 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6 9 | 통권 416호



2 **벽화 이야기** 계빈국 사자존자
4 **이달의 법문** 추석(한가위)에 비추는 보름달 大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추석의 나눔, 수자타의 마음 정덕스님
8 **수행여화** 그 정도는 봐줘도 되는데 현진스님
11 **경전 구절 산책** 수행의 목표, 깨달음에서 성불로 원경스님
14 **인도 건축 미술 순례** 날란다의 시간여행 안필섭
17 **大법주사 템플스테이**
18 **大법주사 국악합창단 단원 모집**
19 **大법주사 공양미 / 大법주사 행사 일정**
20 **大법주사 소식 / 말사 소식**
21 **광명진언기도 / 초하루신중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미륵재일기도 / 지장재일기도 / 생일불공**
22 **추석 합동 차례 안내 / 나한도량 성지순례 안내**
23 **大법주사 미륵반가사유상 개금불사 안내**
24 **승려복지 후원 안내**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70(단기4359)년 9월호 통권 416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보은 라 00002)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인 · 정덕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大법주사

추석(한가위)에 비추는 보름달

지명 대종사 大법주사 조실



한가위가 되면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大법주사 온 도량을 환하게 비춥니다.
예로부터 음력 팔월 보름은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명절입니다.
한가위는 '크다'라는 뜻의 '한'과 '가운데'를 의미하는 '가위(보름)'를 합친, 8월의 정중앙인
큰 보름을 의미합니다. 한 해 수확한 곡식을 함께 나누고 조상님께 감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날인 것입니다. 흔히 추석을 유교적 명절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행자가 바라보는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불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위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시풍속과 정신적 뿌리에는 불교의 가르침과 전통이 크게 작용합니다.

내가 지은 복을 남과 나눈다는 '회향'의 마음, 백중의 '조상 천도와 햇과일 공양'이 추석의 차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불성佛性을 둥근달에 비유한 것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 지면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 불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온전히 밝아 있는 보름달과 같은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달의 밝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시적인 번뇌(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밝은 마음(보름달)은 항상 그 자리에 빛나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심으로 괴로워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며 무명無明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번뇌의 불길에 활활 타고 있으니, 본래의 원만구족한 달과는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름 걷힌 마음속의 환한 보름달이 드러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와 지혜의 실천 즉 수행을 통해서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즉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올라오는 번뇌 망상을 돌려(轉) 긍정으로 바꾸고, 베품을 생각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곧 밤길을 비추는 듬직한 길잡이가 되어, 구름 한 점 없는
보름달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구름이 걷힌 그 마음은 남녀노소 차별도 없고, 잘나고 못난 분별도
없으며, 나고 죽는 생사의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천 년을 깜깜했던 방이라 할지라도
단 한 줄기의 빛으로 온전히 밝아지니, 오직 둥글고 밝은 대적광大寂光의 세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질의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원결을 푸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과 가족일수록
서운함이 깊고,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내 욕심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타인을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온 세상을 차별 없이 비추듯,
우리도 자비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돌려 용서하고, 성내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심하고 머리를 숙일 때, 비로소 내 앞을 가로막던 인연의 문이 열립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으니, 오늘 마주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설하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서로가 원만한 보름달이 되어 상대를
비추어 주는 것은 어떠신지요. 달은 초승달에서 반달을 거쳐 보름달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차오르기를
반복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보살행을 실천하며 세상을 밝히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번의 지극한 절과 한 번의 정성스런 염불이 내 마음의 달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기도에서 나아가 실천하는 서원을 세우고, 티끌 한 점 없는 청정한 자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저 둥근 보름달에 부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마음에 부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달인 본래의 자성이 드러날 때, 매일이 풍요롭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찬란한 가을밤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지스님 법문

추석의 나눔, 수자타의 마음

정덕스님 大법주사 주지

가을 문턱에 들어서며 이제는 자연의 변화를 몸소 체감하는 시기입니다.
들판의 곡식은 점점 무르익어가고, 산과 들은 서서히 빛깔을 달리하며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알려 줍니다. 추석은 이러한 풍요를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날이지요.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면, 단순한 풍요의 기쁨을 넘어서
나눔과 자비의 실천, 그리고 중도의 지혜를 되새기는 때가 아닐까 합니다.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제25권에는 잘 알려진 수자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 후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이어가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하루 한 알의 곡식만 섭취하거나, 숨을 거의 멈추는 수행을 하며
몸과 마음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깨달음이 아니라,
몸이 쇠약해져 더 이상 수행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때 마을의 처녀 수자타가 정성껏 끓인 유미죽을 올렸습니다.
경經에서는 이 장면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수자타의 그 작은 보시는
태자가 다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어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음식 공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자가 수행했던 극한의
고행을 내려놓고 중도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결정적인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길은 극단이 아니라 중도中道입니다. 지나친 쾌락에 빠져도,
지나친 고행에 치우쳐도 깨달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중도의 길,
즉 균형과 지혜의 길에서 참된 자유와 깨달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우리도 수자타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불교의 길은 극단이 아니라 중도입니다. 지나친 쾌락에 빠져도,
지나친 고행에 치우쳐도 깨달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중도의 길, 즉 균형과 지혜의 길에서
참된 자유와 깨달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우리도 수자타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곧 불법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길입니다.
나눔은 반드시 큰 재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 하나, 격려의 말 한마디, 정성 어린 음식 한 그릇도 모두 귀한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곧 불법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길입니다.
나눔은 반드시 큰 재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 하나, 격려의 말 한마디, 정성 어린 음식 한 그릇도 모두 귀한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받는 사람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의 마음에서 욕심과 집착을 덜어내고, 서로가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수행입니다.
가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균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자연이 중도의 지혜를 보여주듯, 우리도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와 나눔으로 마음을 채울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나친 욕망도, 지나친 억압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이 곧 불자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大법주사 도량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 성숙한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수자타의 작은 보시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끌었듯,
우리의 작은 나눔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그 정도는 봐줘도 되는데

현진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여름날의 정원은 손길 가서 나쁠 게 없다.
무한불성無汗不成. 이 세상엔 땀 흘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이든 성과를 내기 어렵다.
백거이의 명언 중에 '보졸불여근補拙不如勤'이란 글을 좋아한다.
서툰 일을 보충하는 것은 부지런함 밖에 없다는 뜻. 밀린 일이나 부족한 업무를 보완하려면
날마다 노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한가히 산천 구경이나 다니고 음주 가무를 할 시간이 어디 있으랴.
능력이나 재주가 떨어지면 근면해야 입지가 가능하다.

요즘의 일상은 풀 매는 일이 전부다시피 하고 있다.
풀이 자라지 않는 땅은 없기에 여름날의 일과는
풀 잡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 공부와 풀 매는 때를
미루는 일이다. 이건 미루어서 될 일 아니라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차곡차곡 모았다가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여름 정원은 풀을 잡지 못하면 그 꼴이 엉망이다.
그래서 풀들의 인해전술이 시작되기 전에
초기에 진압해야 하는 것이다.
어제는 법당 뒤를 걷다가 산책을 미루고
큰 풀부터 잡았다. 그 공간을 손본지
보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새 키를 키웠다.
이상하게 주인의 발자국이 뜸하면
더 빨리 자라는 것 같다. 사정이 이러하니
맘 놓고 산보할 처지가 못 된다.

어디 발걸음하다가도 풀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뽑기 때문에 한가로운 산책을 할 수가 없다.
누군가가 손에 풀을 쥐고 있으면 그이는 영락없이
주인이다. 이렇게 주인의 눈에만 보이는 게 풀이다.
잡초가 없다면 정원의 묘미는 더 있겠으나
그건 가당치 않은 일이므로 즐기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모두가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대부분 풀 앞에 무너지고 만다.
여름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풀의 속성에
질리고 말기 때문이다. 여기 정원도 지금껏
다양한 봉사자들이 호미를 들고 참여했으나
꾸준히 지속하는 이는 별로 없다.
열이면 아홉 정도는 여름 풀에 손들고 말더라.
하긴 자신의 정원이 아닌 이상 더위와 벌레를
참아가며 일하기란 쉽지 않다.
땀이 이마로 줄줄 흐르기에 이건 도저히
우아한 가드너가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체면 유지가 불가한 게 풀 매는 작업이다.
처음엔 나도 끝없이 자라는 풀 앞에 앉아
울기도 했다. 참 염치없는 놈들이다.
땅을 공짜로 내어주는데도 주인의 사정은
봐주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산책하다가
맨손으로 풀을 뽑다 들어왔다.
내 눈에 띄면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아야
뒷일이 커지지 않는다. 이따 뽑아야겠다는 셈법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지론은 '즉시즉발'이다.
보이는 즉시 그 자리에서 뽑아야 그만큼 효율적이다.
작물은 키워도 풀은 키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원 관리의 요점은 잡초를 얼마나 다듬고
손질해주냐에 달려 있다.
풀 종류도 다양해서 순서를 바꾸며 자란다.
괭이 풀도 골치고, 쇠뜨기도 원망스럽고 한삼덩굴,
칡덩굴 등 줄기 풀도 성가시다. 바랭이, 비단풀,

쇠비름… 이놈들의 번식력과 저항력은 무서울 정도.
절대 여리고 작다고 봐주면 안 되는 놈들이다.
이웃 절 스님이 내가 자잘한 풀을 솎아내는 걸
보고서 "그 정도면 봐 주시지…
나는 여러번 봐주고 있는데."하더라.
그 표현이 재미있어서 서로 웃었다.
나는 그것마저 봐주기 힘드니 육신이
고단할 수밖에 없다. 작은 풀이라도 봐주기 시작하면
종래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된다.
눈 감고 봐줄 게 따로 있을지 몰라도
여름날의 풀은 용납할 수 없다.
함민복 시인은
'날카롭게 긴 낫을 든 농부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밭둑에 서서 한마디 합니다.
이제부터 풀들과의 전쟁만 남았구나!
이 말을 들은 푸른 풀들이 바람에
맨몸을 부드럽게 풀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부터 저 시퍼런 낫 날과의 전쟁만
남았구나!'라고 표현했다. 나는 낫 날을 세워야 하고
풀은 그 시퍼런 날에 응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여름날의 풀들은 예초기 소리를 들으며
'살아남아야 한다'며 전열을 가다듬을 것이다.
정원을 오래 돌보다 보니 이제는 풀을
효율적으로 잡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풀 매트를 깔고 바크(나무껍질)로 덮어주는
공간과 풀약을 살포하는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예초기로 자르거나
호미로 뽑아주는 영역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영역을 분리해주니까 풀 관리가
한결 쉬워졌다. 처음에는 뭘 몰라서
온 땅을 호미로 뽑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매일 조금씩 영역을 옮겨가며
관리해주고 있지만 부지런함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결국 주인의 손길이 풀의 속도보다 빨라야
정갈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하기에 여름 정원이 정갈한 곳을 방문하면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봉사자들과 풀을 뽑은 뒤 단정해진
정원을 보며 이렇게 표현했다.

"풀이 가득하면 풀하우스, 풀을 매고 나면 원더풀."

여름날의 정원은 손길 가서 나쁠 게 없다.
무한불성無汗不成. 이 세상엔 땀 흘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이든 성과를 내기 어렵다.
백거이의 명언 중에 '보졸불여근補拙不如勤'이란
글을 좋아한다. 서툰 일을 보충하는 것은
부지런함 밖에 없다는 뜻. 밀린 일이나
부족한 업무를 보완하려면 날마다 노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한가히 산천 구경이나 다니고
음주 가무를 할 시간이 어디 있으랴.
능력이나 재주가 떨어지면 근면해야
입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정원에 손길이
필요한 계절이 오면 어디 다니는 일도
사양하며 지내고 있다.
풀 매고 난 우리 정원에선 내일모레쯤이면
부용화가 맑은 얼굴을 보여줄 것 같다.

●●경전 구절 산책

수행의 목표, 깨달음에서 성불로

원경스님 大법주사 강주

2000년 스리랑카에서 공부할 때의 일이다.
당시 켈라니야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절 보현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었다.
법화경의 일승도, 즉 모든 존재가 성불한다는
주제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만나는 현지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성불成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들은 나를
엄청나게 불경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근본불교를 계승하고 있는 상좌부불교권에서
부처님은 오직 석가모니불 한 분이었기에,
다른 사람이 성불한다는 말은 석존에 대한
불경으로 비춰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는 그 수행목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근본불교에서 수행의 목표는 출가한 비구와
재가불자들이 서로 다르다. 우선 출가한 비구의 경우
수행의 목표가 『초전법륜경』에 잘 나타나 있다.

"수행자들이여, 귀 기울여 들어라.
여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머지않아
그대들도 출가한 목적을 완수할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수행자는 그 어느 쪽에도 기울어서는 안된다.
하나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관능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데
열중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난 중도中道가
있다. 그것은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증진시키며,
번뇌를 쉬고 고요하게 한다. 신통을 이루며,
평등한 깨달음을 얻어 미묘한 열반에 이르게 한다.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롭고 성스러운
팔정도이다. 정견正見 · 정사유正思惟 · 정어正語
정업正業 · 정명正命 · 정정진正精進 ·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다.
수행자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가
있다. 그것은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근본불교 경전에서는 출가한 비구들에게 가르침의
정형구로써 4성제와 8정도〔中道〕가 설해지고 있다.
인간이 처한 현실적 번뇌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의 원인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이었음을 아는 것에서 수행은 시작된다.
항상 번뇌를 벗어나는 여덟 가지의 올바른 수행을

통해, 그릇된 욕망을 남김없이 없애고 단념하고
내던지고 집착 없는 아라한과를 얻어 해탈하는 것이
출가한 비구들의 수행 목표이다.
당시 사위성을 공포로 물들인 살인자 앙굴리말라도
부처님께서 귀의시켜 비구로 만들었다.
불교는 극단적인 살생업의 고통마저도 참된 가르침을
통해 악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그날 밤, 피와 땀이 엉겨 붙은 머리카락을 자른
앙굴리말라에게 부처님은 차근차근 법을 설해주셨다.
잘못된 소견에 휩싸여 자신과 남을 해치는 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중생들의 실상을 설해주셨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결박에 묶여
고통스러워하는 윤회의 긴긴 삶을 설해주셨다.
그릇된 견해와 결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
평화롭고 청정한 삶을 말씀해 주셨다.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온갖 번뇌가 사라진
앙굴리말라는 진리에 눈을 떴다."

한편 재가불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가르침이 설해지고
있다. 당시 인도의 정통 브라만교에서는 제사를
통해서만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재가자들에게
보시와 지계를 통해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설한다. 우선 최초의 재가불자인 야사의 아버지가
부처님을 만나 우바새가 되는 과정을 보자.

"부처님은 야사를 위해 차근차근 가르침을
설해주셨다. 선한 마음으로 보시를 베푼 공덕에 대해,
올바른 계율을 지키는 삶이 가져다주는 행복에 대해,
보시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고 하셨다. 욕심에 따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욕심을 버린 생활이 얼마나
평온한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 이후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의 두 발에 예배하고 합장하였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승가에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오늘부터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바새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보시를 실천하고 오계五戒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시었다."

대승불교는 깨달음 또는 해탈에서 성불로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 일어난다.
근본불교에서는 출가인과 재가자에게 설한 가르침이
완전히 다른 반면, 대승불교에서는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모두 보살로서 6바라밀을 실천하여
성불하는 가르침이 다양하게 설해지고 있다.
『열반경』은 일체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근거로써 불성佛性이 있음을 설하고 있다.

〔一切衆生悉有佛性〕 『법화경』은 모든 사람에게
성불의 수기〔약속〕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승불교권에서 성불할 수 없다고
여긴 소승의 성문聲聞이나 악인惡人인
제바달다에게도 성불의 수기를 준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사원에 들어와
'나무불'이라고 말하여도 성불하였다고 설하고 있다.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은 공空에 대한 견성체험과
6바라밀의 실천〔不空〕이다.
아我와 법法이 공함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다.
견성은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단순히 공을 깨달아 견성하였다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다. 성불은 반드시 두 가지 종류의
공空 또는 여래장如來藏을 구족해야 한다.
『대품반야경』에서는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만법 자체의 형상이 텅 비어 있음에 깨달아
들어간다. …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실천할 때, 초발심보살에서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만법의 본성을 잘 배운다. 만법의 본성을 배우는 것을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도라고 부른다.
이 도는 6바라밀을 두루 갖추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하였다.
우선 대승의 보살은 견성을 통해 열반을
성취한〔自利〕 후 반드시 6바라밀을
실천해야〔利他〕 수행의 완성인 성불〔圓滿覺〕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리행을 통해 지혜를,
이타행을 통해 복덕을 구족해야
성불하는〔兩足尊〕 것이다.





날란다의 시간여행

안필섭 보살사 불학연구원장

**날란다는 굽타 왕조 시기인 5세기부터 12세기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던,
세계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불교 교리뿐만 아니라 의학,
천문학, 수학 등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인도의 집들은 폭이 좁고 앞뒤로 길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한낮의 열기를 줄이기 위한
구조이지만, 겨울에는 사정이 다르다.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난방 설비도 거의 없어
실내는 생각보다 훨씬 춥다.
겨울철 기온이 영상 5도 정도인데도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소식이 실감 나는 이유다.
늦은 밤에 도착한 빠뜨나(Patna)는
비하르(Bihar) 주의 주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부처님 당시에는 빠딸리뿌뜨라(Pāṭaliputra)라고
부르던 오래된 도시이다. 숙소 주변에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유동 인구도 많아 밤늦게까지
북적거렸다. 델리 이후 처음 느껴보는 도시의 활기였다.
간단히 식사하고 숙소로 들어왔지만,
더운물을 쓰는 것이 편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도
썰렁하기만 했다. 오히려 밖으로 나와 시장을
구경하니 사람들의 활기도 느껴지고, 추운 감도
없었다. 썰렁한 방 때문에 감기에서 회복되던 아내의
컨디션이 나빠질까 봐 델리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항생제를 길거리의 작은 약방에서 샀다.

그리고 아쉽긴 하지만 비하르 박물관 일정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라즈에게 아침 일찍
날란다(Nālandā)로 출발하자고 했다.
날란다는 굽타 왕조 시기인 5세기부터 12세기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던, 세계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불교 교리뿐만 아니라 의학,
천문학, 수학 등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현장스님의《대당서역기》에 따르면 7세기 당시
날란다에 상주하며 수학하던 학승은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하며, 의정스님의《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따르면 아리야발마阿離耶跋摩, 혜업慧業 등
신라의 스님들도 수학했다는 기록이 있다.
아침부터 차로 100km를 달려 날란다 유적에
도착했다. 마치 어떤 대학교 캠퍼스에
방문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넓었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에 맑은 공기가
반가운 날란다 유적지에는 교복을 입은 수많은
인도 학생들이 소풍을 온 것인지 경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학생들의 틈에 끼어 안으로



날란다 동측 기숙사 유적

들어가자 눈앞에 보이는 날란다의 모습이
그 옛날에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비록 건물들은 허물어져 유적으로만 남았지만
소풍 온 학생들이 자칫 허전했을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국인은
우리 부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역에
도착할 때마다 학생들은 한국에서 왔다는 말만
듣고도 함께 사진을 찍자며 몰려들었다.
날란다의 기본 공간 배치는 남북의 축선을 따라
동측과 서측이 대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동측에는 승원과 기숙사가, 서측에는 사원과 탑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날란다 유적의 백미는 역시 서측의 사원과
탑 구역이다. 제3사원의 스뚜빠(Stūpa)는
벽면을 장식한 정교한 불상과 부조가 인상적인
날란다 유적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사리불(śāriputra)을 기념하는 탑이라고 전해진다.
시대마다 기존 탑 위에 벽돌 구조물을 덧씌우며
증축했기 때문에 다층 구조를 보이는데,
이러한 전탑塼塔의 축조 방식은 경상북도
영양 지역의 모전석탑들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제2사원에는 수많은 석조 부조가
조각되어 있는데, 불교 도상, 기하학 문양, 동물,
생활상 등이 묘사되어 있어 다채롭다.
동측 승원 구역에는 생활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넓은 정사각형의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중정 구조를 갖추고,
사방에 벽돌로 회랑과 승방을 설치하였다.
무척 비좁은 공간이지만 이곳에 서 보니
삶을 가볍게 여기고 불법을 위해 목숨을 바치던



날란다 제3사원 大스뚜빠

경생순법輕生殉法의 구법승들의 강한 서원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 먼 옛날, 멀리 신라에서
유학 온 스님들은 이 좁은 방에서 무엇을 다짐하고
있었을지 상상해 보며 날란다의 시간 여행을 마쳤다.
이제 오늘의 남은 목적지는 부처님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마가다(Magadha)국의 수도,
우리에게 왕사성(王舍城, Rājagṛha)이라고
잘 알려진 라즈기르(Rajgir)이다.
빠뜨나에서 라즈기르까지 약 100km,
차로는 2시간 반 거리인데, 기차를 탄다면
서너 시간 걸린다. 만일 룸비니에서
차를 대절하지 않았다면 이 여행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 전체적으로 보아도 비하르는 굉장히
낙후된 곳이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더군다나 불교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들은 우리에겐 익숙한 지명이라서
친숙하지만, 불교에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소도시에 불과하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라즈기르는 군청 소재지 정도의 규모와 분위기다.
라즈기르에는 늦은 오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트가 있어서 떨어져 가던 샴푸와 간단한 먹거리를
구입했다. 예약한 숙소는 라즈기르 변두리에 있는
동네 이장님의 이층 집이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더운물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집주인인 싱(Singh) 씨가 매우 친절했다.
2층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벌써부터 마음이 죽림정사와 칠엽굴을
향하고 있었다.

23·24·25년 3연속 최우수 템플스테이

속리산 大법주사

마음을 비우다 쉼 마음을 채우다



大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大법주사

국악합창단 단원 모집

한 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지도교수 및 예술감독

함수연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 제23회 명창박록주 전국대전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 수상)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박사수료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사 졸업
-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충북지회 지회장
- 大법주사 국악합창단 지도교수 및 예술감독

전통의 울림과 수행의 마음을 함께 나눌
大법주사 국악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국악을 사랑하고 함께 배우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갈
大법주사 신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습일시	장 소	모집대상	활동내용	함께하는 기쁨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 매월 1·3째주 大법주사 국악연습실 • 매월 2·4째주 청주불교방송국	大법주사 신도 및 관심있는 분	찬불가·민요·전통국악 합창 공연 및 봉사활동	전통국악의 울림으로 신심을 다지고 아름다운 인연을 나눠보세요



大법주사 문의 **043-543-4755**



大법주사 공양미

신도님들께서 부처님께 정성으로 올리시는 大법주사 공양미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음성 미타사 밝은언덕 노인요양원 등으로 기부되어 아프고
힘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비나눔의 실천에 함께하신 많은 신도님들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라. 병든 이를 치료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외로운 자를 위로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섬기는 일이다.

2026. 9 大법주사 행사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7.20	2 21	3 22	4 23 정일대종사다례	5 24 관음재일 광명진언기도
6 25	7 백로 26	8 27	9 28	10 29	11 7.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12 2
13 3 신중기도회향	14 4	15 5 월산대종사다례	16 6 4차 나한도량 성지순례	17 7	18 8 약사재일	19 9 다라니독송기도
20 10	21 11	22 12	23 추분 13	24 14	25 추석 15 보름 추석합동차례	26 16 미륵재일
27 17 금오대종사다례 팔상전 탑돌이	28 18 지장재일	29 19	30 20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 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7시 30분, 8시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大법주사 소식






백중3재 — 어산시연 — 팔상전 탑돌이






팔상전 탑돌이






백중4재 — 백중5재 (초하루)







칠석기도 — 백중6재



교구종회



승려복지 기금전달식(단양청련암)



승려복지 기금전달식(보살사)



●●말사 소식



박물관장 임명(진천스님)



주지임명 봉선사(혜욱스님)



광명진언기도 – 9월 5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릍타야 훔" 부처님의 대광명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빛을 관상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지혜를 깨닫는 진언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 9월 11일 금요일 오전10시 대웅보전 〈차량운행-보은/청주/대전지역〉

매월 음력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정성을 다해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간의 평안과 성취를 기원하는 법회입니다. 매월 새로운 마음으로 선업을 닦고 복을 기원하는 신심의 발로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9월 19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힘으로 내 안의 모든 번뇌를 씻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중한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륵재일기도 – 9월 26일 토요일 오전10시 미륵전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의 자비로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 없는 평화로운 세상(용화세상)이 오기를 염원하는 기도로 매월 음력 16일 봉행됩니다.



지장재일기도 – 9월 28일 월요일 오전10시 명부전 〈차량운행-청주지역〉

매달 음력 18일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선망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업장소멸과 살아있는 가족의 안녕을 발원 기도입니다.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생일불공

더없이 귀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좋은 기운을 채워 행복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 부처님께 축원올리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 043)543-4755 문자 • 카톡 010-6732-0133으로 사전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 당일은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 大법주사 기도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 법주사)

추석 합동 차례 안내



만물이 무르익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속리산 大법주사에서는 명절날 여러 사정으로
가정에서 차례를 모시기 어렵거나 부처님의
청정한 도량에서 불교식 의례로 조상님께
정성껏 차례를 모셔드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합동 차례를 봉행합니다.

스님들의 집전아래 정성껏 마련한 차례상으로 명절날 경건하게 선망조상님들과 인연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그분들의 은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하시어 효를 행하고
무량한 공덕 쌓으시길 바랍니다.

일　　시 2026년 **9**월 **25**일 금요일(음 8월 15일 추석 당일)
장　　소 대웅보전
동참보시 한가족 **10**만원
동참계좌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나한도량 성지순례 안내

나한도량 성지순례는 나한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각자의 서원을 발하여
삶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거룩한 구법求法의 길입니다.
나한님의 영험한 가피를 입고 가정의 평안과 자손창성, 그리고 각자의 서원을
성취하는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4차 성지순례** – 울진 불영사 (9월 16일 수요일)
- **청주2대/대전1대/보은1대(속리산포함)**
- **청주 보문심 010-5498-5546 / 환희주 010-9423-3858**
  대전 자비심 010-9559-9223 / 보은(속리산)-원주실
- **동참보시** – 1인 5만원 (당일 승차시 팀장님께)

大법주사 미륵반가사유상 개금불사 안내

"부처님께 새 옷을 입혀드리는
무량한 공덕의 불사에 인연을 맺으소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大법주사의 정신적 귀의처인 미륵전 내부의 미륵반가사유상은
오랫동안 수많은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기도와 발원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부처님의 금빛 안색이 퇴색되고 도포가 마모되어
금번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부처님의 형상을 새롭게
황금빛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改金佛事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몸에 금 한 조각을 올리는 정성은
법계의 지극한 공덕이 되어, 동참하신 불자님들과 선망조상,
그리고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무량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세생생 삼대의 가족이 공덕의 보탑을 쌓는 이 거룩한 인연에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수희 동참을 발원합니다.



동참기간 2026년 **6**월부터 2027년 불사 원만 성취 시까지
불사동참 1인 1구좌 **10**만원
접수안내 大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010-6732-0133(**문자접수**)